

‘국정원 국조’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빈손’

특위위원 결론 못내고 임시국회 개회 문제도 합의 도출 실패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보고·민생법안 관련 상임위는 열기로

과행되고 있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이하 국정원 국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는 등 국정원 국조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최경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배석 하에 11일 오후 국회에서 회담을 하고 국조특위위원 배제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의 이루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의 국조특위 배제를 요구했으나 민주당

은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 개회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다만, 국회 법제사법위·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 등을 조속히 가동해 감사원이 전날 발표한 4대강사업 감사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다. 또 정무위 등 민생법안을 논의할 상임위도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여야는 이날 하루 종일 파행 책임을 서로에 전가하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새누리당은 이날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 사유’를 재차 강조하며 두 사람이 빠져야 국조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국조는 민주당이 요구해 시작한 것으로, 어떻게든 순항하도록 노력하는 게 도리인데 정작 민주당이 국조의 파행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오�히려 민주당이 국조를 해도 별로 나올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국조를 무산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거들었다. 새누리당은 나아가 민주당 문제인 의원이 최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전가하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발언한 데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대선을 부정하고 현 정부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선거를 부정하는 것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대선에 직접 출마했던 후보까지 나서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반면, 민주당은 두 의원에 대한 새누리당의 특위 배제 요구를 거듭 거부하면서 새누리당의 국조 개회 협조를 압박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두 의원에 대한 사퇴 요구는 억지이며, 국민이 동의할 수 없는 물귀신 작전”이라며 “새누리당은 엉뚱한 핑계로 국조조사를 방해하지 말라”

고 말했다. 국정조사특위 간사인 정정래 의원은 “민주당은 이미 증인 88명, 참고인 25명의 명단을 준비하는 등 모든 준비를 끝냈다”면서 “새누리당의 억지 주장만 아니면 당장 국정조사 특위가 개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국조 정상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지도부는 국정원이 전날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했다는 취지의 해석을 담은 성명을 낸 데 대해 국정조사에 대한 여론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NLL 논란을 재점화시키려는 의도로 간주하고, 국조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11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실에서 만나 서로 모두 발언을 먼저 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단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여야, 오늘 정상회담 대화록 예비 열람

- 열람위원 10명 명단
 - 새누리=황진하·김진태·심윤조
 - 김성찬·조명철
 - 민주당=유윤근·홍익표·전해철
 - 박범계·박남춘
- 여야는 12일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예비 열람한다. 내주 공식적으로 열람할 자료를 사

전에 추려내기 위해서다. 여야는 이날 경기도 성남에 있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사전에 제시한 핵심 검색어에 근거해 국가기록원이 선정한 자료 목록을 예비 열람하기로 했다고 새누리당 윤상현,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가 11일 밝혔다. 양당은 이를 위해 각각 5명의 열람위원을 선정, 명단을 교환했다. 새누리당에서는 황진하·김진태·심윤조·김성찬·조명철 의원, 민주당

에서는 유윤근·홍익표·전해철·박범계·박남춘 의원이 선정됐다.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필요한 자료를 2부씩 국회에 제출하도록 요구기로 했으며, 이르면 15일경 제출받아 열람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열람 시에는 전자기기를 휴대하지 않도록 하되 메모는 허용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가기록원에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운영위 차원에서 보안서약을 할 방침이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민주, 전당원투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결정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기초선거에 대한 정당공천 제도 폐지 여부를 전당원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당원투표 시기에 대해 “시기도 조만간 결정할 것”이라며 “최대한 빨리 실시하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해 당내 논란이 많은 만큼 전당원투표를 실시하기 전 공천회

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전당원투표는 김한길 대표가 5·4 전당대회에서 내건 공약으로, 민주당은 현재 관련 시스템 개발을 마치고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전당원투표의 첫 대상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삼을 것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으나 기술적·정치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유보해 오다가 이날 결론을 내렸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이낙연, 노숙인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노숙인 법률) 시행 1주년 기념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보편적 복지가 대두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복지 취약계층인 노숙인을 위한 법률을 시행 1주년을 맞이해 재정비한다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토론회 취지를

밝혔다. 또 토론회에서는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소장이 주제발표를 했으며, 한국노숙인 복지시설협회 이현준 정책위원장과 보건복지부 강도대 복지행정지원관 등이 토론자로 참석, 정부와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우원식, 영산강 136km 전 구간 도보 답사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영산강 살리기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등과 함께 1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5박6일 동안 영산강의 발원지인 담양군 용소에서 목포시 영산강 하구언까지 136km 전 구간을 걷는 ‘2013 우리 강 도보순례’에 나섰다. 우리강 도보순례는 ‘현장에서 정책과 제도개선의 답’을 찾는 취지로 지난 2005년 삼진강(212km), 2006년 금강(396km),

2007년 한강(482km), 2008년 낙동강(522km)에 이어 올해로 5번째다. 특히 이번 영산강 도보순례는 국내 5대 강 중 유일하게 식수원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영산강의 현실을 되짚어보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영순, 전남도와 국고예산 지원 협의 간담회

새누리당 주영순 의원은 11일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이근현 국회 예결위위원장과 함께 내년도 전남지역 국고예산 지원 협의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 지사는 호남고속철도(송정~목포) 건설, 남해안철도(임성~순천) 건설 등 대통령 지역 공약사업과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 흑산도 소형공항 건설, 수출양식단지(대규모 전복양식) 조성 등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고예산 확보

를 건의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주 의원은 “낙후된 전남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약 및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전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새누리, 국회의원 ‘무노동무임금’ 추진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11일 국회의원회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도록 제도화할 것을 당에 건의했다.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인 박재창 속명여대 교수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에 대한 수당 등은 국회의원이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지급된다”면서 이같이 요구했다. 박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 수당 등의 지급을 전면 중단하되 무죄판결 시 소급해서 지급하고, 국회 개원이 지연되면 국회의원 수당 등을 지급하지 말 것을 제안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 200만원 분양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 3억7400만원
분양 4억6750만원

<p>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p> <p>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p> <p>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p> <p>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p>	<p>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p> <p>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p> <p>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p> <p>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p>
--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p>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2294P 임대가 18억3520만원 / 분양가 25억2340만원</p> <p>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임대가 2억7540만원 / 분양가 3억6720만원</p> <p>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임대가 42억2500만원 / 분양가 54억9250만원</p> <p>지상1층 지상1층 현대문매장 22P 임대가 1억1천만원 / 분양가 1억4300만원</p> <p>지상1층 미용실 23P 임대가 1억1500만원 / 분양가 1억4950만원</p> <p>지상1층 약국 69P 임대가 6억9천만원 / 분양가 8억2800만원</p> <p>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임대가 2억2천만원 / 분양가 2억8600만원</p> <p>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림탑 540P 임대가 16억2천만원 / 분양가 21억6000만원</p>	<p>지상2층 PC방 203P 임대가 4억6000만원 / 분양가 5억7500만원</p> <p>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임대가 3억3200만원 / 분양가 4억15000만원</p> <p>지상2층 볼링장 854P 분양가 17억8000만원</p> <p>지상2층 한정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p> <p>지상 2층~3층 골프장 906P 분양가 18억12000만원</p> <p>지상3층 일식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p> <p>지상 3층~4층 영화관 (인정확정)</p> <p>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임대가 7억7400만원 / 분양가 9억67500만원</p>
---	--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